

서부신시가지 보행자 명품거리 '순항'

현재 85% 공정률... 수목식재·전기접속 등 후속작업 거쳐 5월 중순까지 완료 예정

전주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구 내 보행자전용도로가 오는 5월이면 걷고 싶은 특화거리로 시민에게 제공된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흥산라이브 광장과 전주비보이광장을 중심으로 각각 십자형으로 연결된 노후화된 보행자전용도로(폭6~10m, 거리955m)를 걷고 싶은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보행자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현재 85%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준비 내용은 보행자전용도로의

초입부에 각각 통석 벤치를 설치해 자동차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 설치된 통석벤치 측면에는 LED경관조명이 설치됐으며, 심야시간 각각 십자형으로 연결된 노후화된 보행자전용도로(폭6~10m, 거리955m)를 걷고 싶은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보행자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현재 85%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광장부와 접속된 보행자전용도로는 광장과 같은 화강석 재질과 패턴을 넣어 한층 더 넓고 트인 광장의 이미지를 심었으며, 환경과 미관을 고려해 친환경 투수블록으로 바다

을 포장해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거리가 되었다는 주변상인들의 평이다. 시는 향후 철쭉과 남천, 대나무, 꽃잔디 등을 식재하고 전기 접속 등 후속작업을 거쳐 오는 5월 중순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부신시가지의 보행자전용도로인 십자형녹도는 지난 2008년 준공이후 건물 신축과 차량진입 등으로 훼손돼 몸살을 앓아왔으며, 일부 가로수가 고사하면서 미관을 저해해왔다.

이에, 시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분당 등 타 지역 특화거리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들을 설계에 반영했으며, 지난해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현재 공사 진행은 85%로 당초 준공예정일인 6월 10일보다 빠른 5월 중순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해 주변상가의 영업과 보행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인후공원 유아숲 체험원 준공

전주시가 전주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본격화한다. 시는 유아(5~7세)들이 마음껏 뛰어 놀며 자연과 교감하는 체험 활동을 통해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인후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인후공원 유아숲 체험원은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 공간이 되도록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곳은 체험과 놀이,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성돼 아이들이 자연교실에서 뛰어 놀면서 모험심도 키우고, 즐거운 힐링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새집과 작작더미, 곤충아파트 등 자연관찰시설 △싱겁다리, 나무정글짐, 소꿉놀이, 사각네, 숲속점막대, 타잔놀이 등 체험놀이시설 △아이들의 좋아하는 잡자리 의자, 그늘터널, 기차놀이, 피노키오 의자 △교육 공간을 위한 숲교실과 숲체험장 등이 조성됐다.

시는 인후공원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됨에 따라 이곳에 유아숲지도사 2명을 배치해 오는 12월까지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평일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일반 가족은 주말에 이용이 가능하다.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등 하루 2차례씩 진행되며,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된 25개 단체가 매일 1회 정기적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현재 오전반은 접수가 마감돼 오후반만 신청할 수 있다. /기동취재반



'세종이 꿈꾼 세상' 제173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24일 5000여명의 시민들이 전주시청 강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열렸다. 이번 초청강의에는 세종즉위 600주년을 맞이해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자 '조선 산책', '책으로 읽는 조선의 역사', '역사속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등의 저자인 신병주 강사가 초청돼 '세종이 꿈꾼 세상'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김승수 비방 대자보 30대, 이현웅 측근 의혹

대자보 붙인 A씨, 지난 10일 기자회견서 이 후보 바로 옆 위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 비방 대자보를 붙인 30대가 경쟁상대인 이현웅 후보 측근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4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후보 비방 대자보를 붙인 A(36)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이 후 김 후보측은 비방 대자보를 이 후보측이 붙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측은 김 후보측의 마타도어라며 비방 대자보 사건 개입을 부인했다.

하지만 A씨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와 가깝게 지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바로 옆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후보의 오른쪽 옆에는 캠프 핵심 간부가 함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A씨도 이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 A씨의 SNS 계정에는 이 후보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영화 포스터에

함성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이 후보측은 A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이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서도 "(기자회견 당시 이 후보 옆에 있었던 것은) 캠프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9일 지인 3명과 전북지역 대학 4곳에 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

'청년심포 프로젝트' 제2기 참여자 모집

전주시, 5월4일까지 50명... 매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전주시가 '청년심포 프로젝트'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노동시장의 침체로 인한 삶에 대한 무게에 힘겨워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심적 치유와 자존감 강화에 도움을 주는 '청년심포 프로젝트' 제2기 참여자 50명을 오는 5월 4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심포 프로젝트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심리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에 대한 용기를 보내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제1기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이번 2기 청년심포 프로젝트의 특징은 참여 연령이 기존 만19~29세에서 만18세~34세까지 확대되고, 지원대상자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더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 50명에게 개인별 11종의 심리검사와 집단 상담을 통해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심리치유 이후에는 구직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수당이 매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 지원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며, △재학생 △휴학생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참가대상자는 서류심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가 청년심포 프로젝트 제1기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참가자가 만족의사를 표시했으며, 이 프로젝트가 심적 치유와 자존감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취재반

전주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차 컨설팅 실시

전주시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24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전주시 재난대책본부 13개 협업기능 부서 담당자와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비 2차 컨설팅을 실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훈련진행 시

관련 임무와 역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토의·발표시간을 통해 재난대처기능을 명확히 이해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보완·개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윤현열 국민안전지원협회 재난안전관리 이사 와 김요찬 안전한국훈련 컨설팅 위원으로부터 위기관리매뉴얼에 기반한 훈련 기본계획단계부터 훈련실시계획 등 훈련설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기동취재반

경찰관 폭행한 마약 판매자 2명 집행유예

백반을 마약인 것처럼 속여 팔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을 목검으로 수차례 때린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19)군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말 인터넷 포털게시판에 마약류 판매에 관한 광고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27일 오후 2시에 전북 전주시내 한 공원에서 백반 30g을 팔려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을 길이 60cm의 목검으로 7~8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마약 광고 횟수가 적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4개월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삼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